

非唯物的 哲學觀(七)

裴相河

이와가티 『物』과 『心』은 어대까지 異種的인 兩根源이로되 勿論 그 가운데에는 密接한 關係가 엮는 것은 아니다. 物이 心을 支配하거나 心에게 物에 影響이 미치거나 於何間 兩者間에는 슨을 수 엮는 相互關係에는 相互關係가 있다는 것만은 眞理이다. 그리치만은 마치 凶惡한 君王이 善良한 臣下를 威力으로 支配한다 할지라도 君王의 (凶惡과 臣下의 『善良』이란 兩本質은 永遠히 相馳되는 것과 가치 物心이 設令 主從關係에 있다 할지라도 從인 他를 主에게만 還元해버리려는 것 가튼 『唯物論』 『唯心論』이란 名稱은 너무나 大膽한것이라 할 수맞게 엮다.

以上과 가티 한사람의 身體와 生命을 維持하기 爲하여 物心 兩元은 손을 마조잡어야 할 緊密한 關係에 잇는 것이지만은 그 傾向性이 엮는 兩單元이 니한 모든 것을 物的 解釋으로 歸元함으로써 吾人の 躰체인 心的 要求의 獨立을 否認하는 徹底한 唯物論의 存在 根據를 疑心치 안할 수 엮게 된다. 그럼으로 吾人이 完全한 生活과 完全한 思想을 要求한다 할 것 가트면(누가 要求치 안흐라) 『物』과 『心』이란 個體 한편에만 偏愛的으로 固着하지 못할 것이지만은 萬苦 그럴 것 가트면 우리는 이와 가튼 物心 二元論에 滿足치 안흐면 안되겟느냐의 哲學的 行動이 생겨나지 안니치 못할 것이니 分裂을 意味하는 二元보담 統一의 一元을 要求하고 잇는 우리의 理性은 物心 二元을 二元대로 두지 안코 他를 支配할수잇스며 他的 存在까지 거기에 導出할 수 잇는 그러한 根元의 一元을 要求하고 잇다. 思想에 잇어서든지 生活에 잇서든지 우리는 늘 統一的이며 單元的인 『모든 本質中の 本質』을 차즈려고 애 쓴다. 그러면 무엇으로써 支配的 根源으로 세울 수 잇을가?

物心은 兩 異質의 個體이니 眞 物이 不當함도 勿論이고 心이 不當함도 自明하다. 그러타고 物도 아니고 心도 아닌 엇서한 다른 根源 自體(이것의 正體는 吾人の 認識을 超越한다)를 따로히 세우는 『스펜서-』의 不可知的 一元論(『칸트』도 여기에 새지 안타)에 贊成할 수도 엮는 것이니 그럼으로 筆者는

斷然 物心을 支配할 수 있고 따라서 人間의 全生活을 左右할 수 있는 根本 動因을 物도 아니고 心도 아닌 것 그러타고 物 아닌 것도 아니고 心 아닌 것도 아닌 것 다시 말하면 物心 그 自體 가운데 일어나는 『相互關係 自體』라고 斷言하여둔다. 物心은 個體이로되 相互關係는 個體가 아니다. 그것은 『精力』, 『作用』, 『흐르는 것』, 『힘』이다. 이러한 流動的인 『힘』에서 物은 物의 作用을 어더 이 物的 機關을 統制할 수 있스며 心은 心이 作用을 어더 心的 組織을 經管할 수 있는 것이다. 萬若 物心の 相互關係라는 『힘』이 업섯 든들 物도 죽은 것이고 心도 죽은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關係가 잇슴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維持할 수 있는 것이며 잘하서 宇宙 萬生의 活動이 繼續되는 것이다. 그러치만은 筆者는 이와 가튼 物心の 相互關係로써 宇宙의 本體라는 等의 本體論的 意味를 말함이 아니요 單只 物과 心을 解釋할 쎄에 兩者를 個個的·二元的·獨立的으로 解釋치 안흐면 아니 될 形便이니깐 그러타고 이러한 二元에는 滿足치 안는 人間 理性의 一元的 要求를 滿足시키기 爲하야 定立할 사람인 것이다. 그럼으로 萬若 吾人의 人生 生活의 더 나흔 期待를 成功시키려면 『物』 쏘는 『心』이란 偏僻된 見地에만 설 것이 아니라 兩者를 統合한 그 關係에서 解決을 어더야 할 것이란 말이다. 唯物史觀의 辨證論에 敬意를 表해야 物을 테-제로 心을 에티[안티]테-제로 그리고 兩者의 關係를 쥘테-제라고 하여 들까?

未來에 더 完成된 唯物論者가 생긴다면 그것은 決코 物 其自體에서만 모든 解決을 어드려는 代身에 未來에 더 훌륭한 唯心論者가 생긴다면 그것은 決코 心 其自體에서만 모든 解決을 어드려고 하는 代身에 物心の 『互相關係 自體』에서 異極的인 物心の 微妙한 關係의 原動力이며 잘하서 吾人의 只今 『산다는 것』의 意味인 第三者的 仲媒의 쏘한 絶對的 解決을 어들 수 잇는 唯物論이며 唯心論 體系이어야만 한다. 이곳에서 唯物論과 唯心論은 合同되는 것이다.

(附記) 마지막으로 注意할 것은 結論이 唯心論, 唯物論, 物心二言論, 不可知의 一元論 等 四大 本體論을 조금씩 엿보힌 것 가튼 感을 주지만은 本論의 主旨는 決코 宇宙의 本體를 解決하려는 그러한 엄청난 企圖가 아니엇섯고 다만 人生 生活에서 일어나는 人間의 物的·心的 要求를 分析함으로써 여기에 應用된 것이 唯物論이엇섯고 唯心論이엇섯고 物心二元論 不可知의 一元論이엇섯다.